

제 10 차 캄보디아 단기선교 사역보고

1

일정기간: 2009년 12월 1일-19일

사역지: 캄보디아 꾀다우 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작성자: 선교위원장, 선교부장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MEE 선교부

머리말

2009년 12월 1일 오후 3시 30분 드디어 6개월의 긴 훈련의 씨를 뿌리기 위해 23명의 대원이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단기선교여행 목적은 지난 9차 동안 열심히 캄보디아에 뿌렸던 복음의 씨 뿌림의 연속과 특별히 작년 헌당예배를 기점으로 캄보디아 꾀다우 마을의 복음화를 힘쓰고 있는 복음교회의 교회로서의 기능화를 위한 협력에 있다.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에서 24명, 골드코스트 장로교회 5명, 몽골과 한국에서 의료사역 팀 7명으로 총 36명의 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의 말씀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제 10차 Step-Up in Jesus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은 이름처럼 영어성경교육 사역, 건설 교통사역, 이.미용사역, 군 선교사역, 노방전도집회 사역 등 다양하고 조화로운 사역의 준비를 기도와 오랜 훈련으로 이루어진 선교 사역 팀으로 구성 되어져 있었다. 그만큼 기대도 큰 선교 팀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본론

1) 일정

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팀은 교회에서 짐 정리를 다하고 아침을 먹는다. 김윤환 형제의 경험과 도움으로 짐 정리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다. 오후 12시 5분에 선주성 장로님의 기도로 공항을 향했다. 공항에는 오후 1시 정도에 도착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 비행기 Check-In 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작 되었다. 캄보디아를 향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먼저 Malaysia의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를 거쳐 그날 저녁을 제공된 호텔에서 지내고 다음 날 캄보디아 프놈펜을 향한 비행기를 타야 한다. 미리 짐의 초과를 예상하여 써 보낸 편지 덕에 230kg의 초과 허락을 받았었다. 선교사역과 선교 팀 인원이 많아진 만큼 짐의 양도 많아졌다. 초과 허락 양의 한도를 넘어서 230kg를 고려하고도 329kg

가량이 초과 되었다. 그런데 이 초과량의 금액을 묻지 않고 Check-in 하는 아가씨가 Supervisor의 눈을 피해 적어진 초과량을 인위적으로 초과되지 않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무사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스피커, 공구, 식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지고 갈 수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해마다 짐



사진 1. 공항에서 캄보디아를 향해서

초과량 때문에 겪는 일이라 하나님께 장로님과 몇 분이 기도 하셨다고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 드린다. 오후 2시 문광식 목사님의 기도로 international Airplane Gate 를 향했다(사진1). 오후 3시20분에 비행기를 탑승한 후 6시간 45분이 걸려 말레이시아 Kuala Lumpa 공항에 도착하였다. 항공사에서 마련해준 호텔에서 하루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공항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Concord호텔로 향한다. 호텔에서 간단한 매식을 한 후 현지 시간으로 12시 30분쯤 취침하였다.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 하여 6시 45분 까지 호텔 부페로 아침식사를 하였다. 은영 자매의 생일을 맞아 깜짝 파티를 간단히 하고 7시 공항버스로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 안에서 시간이 조금 있어 팀원들이 각각 흩어져 공항 구경과 가벼운 shopping을 할 수 있었다. 9시 25분 공항 gate로 이동하였고 10시 드디어 비행기는 캄보디아를 향해 날아간다. 1시간 50분 정도 걸려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하였다. 캄보디아 현지 시간으로 11시 30분 도착하여 공항에서 1인당 USD 20을 주고(교회에서 지불) 공항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단체라고 USD 10을 추가로 달란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땅에서 너무나 당연하듯이 외국인들에게 규정에 없는

돈을 요구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짐을 찾는 곳에서는 골드 코스트 교회 지체들이 한 시간 일찍 도착하여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곳 현지 리더자들도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재울 선교사님, 최인필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차에 우리의 짐을 싣고 미리 대절한 버스는 쏘나(현지 리더자중 한 명)의 안내로 복음교회를 향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거리는 무질서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질서가 있는 듯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많게는 여섯 일곱 사람까지 올라 타 이동을 한다(사진2).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이는데 이곳 사람들은 태연하게 다닌다.



사진 2. 프놈펜 거리

사십 분쯤 걸렸을까 곧 다우 마을의 복음 교회에 도착하였다. 아주 크

고 멋있는 교회 건물이 마을 전체에는 어울리지 않게 서있다. 그곳에서 몽골과 한국에서 오신 다른 팀원들이 반겨 주신다.

방배정과 짐정리를 윤환 형제의 도움으로 빠르게 할 수 있었다. 복음교회 예배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Alan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 하여야 할 이유 3가지를 듣는다. 첫째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심을 감사로 찬양, 두 번째는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주심에 감사하여 찬양,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찬양 하라는 것이다.

예배 후 사모님이 준비해 주신 카레로 점심을 함께 하였다. 점심 후 30분 정도 방 청소와 짐 정리 및 각 팀들의 사역 정리를 한 후 약간의 자유시간을 갖는다. 첫날은 특별한 사역일정이 안 잡혀 있었는데 5시부터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 영어사역을 청소년들을 위해 급한 데로 Alan 선교사님이 Mimi의 도움으로 운영하였다. 6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고 7시

에 예배당에 함께 모였다. 총 38명의 지체들의 모임을 통해 이름과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한 후 약간의 장기자랑을 한다. 긴 여행 후에도 팀원들은 밝다. 몽골에서는 두 명의 몽골 의사를 손봄들 선교사님이 침뚫 사역을 위해 데리고 왔다. '보르기르'와 '돌체'라는 청년들이다. 9시 간단한 기도회로 하루를 마감한다.

2009년 12월 3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정도 되었을까?
내 귓가에서 기도소리가 들린다.
선주성 장로님의 기도 소리다. 5시 30분 윤환 형제의 발전기 가동으로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6시에 큐티 모임과 나눔을 갖는다(사진 3). 아침 식사가 7시 8시부터는 아이들을 위한 English Bible School이 10시까지 이루어진다. 8시 45분 그룹으로 Activity를 하고 운동장에서 게임도 한다



사진 3 아침 QT 시간

(사진 4). 오늘은 축구와 수건 돌리기를 하였다. 오늘은 공휴일이어서 126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으로 보내 주셨다. 언어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어찬



사진 4. 오전과 오후 영어성경학교 활동

양과 크메르어 찬양을 통해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11시 정도 되어서야 비로소 팀원들이 휴식을 갖는다. 그 휴식 동안에도 율동을 연습하고 있다.

12시 점심. 1시 15분 또 아이들이 모인다. 2시부터 4시까지 오후 English Bible School 이 운영된다. 이번에는 천지창조와 Quiz 그리고 천지창조에 대한 Activity를 하였다(사진 4). 오후에는 160명이라는 더 많은 아이들이 왔다. 아이들이 너무 많은 탓에 준비되었던 다른 Activity를 취소하



사진 5. 오후 5시 청소년 영어성경학교 그룹공부

였다. 3시 30분 아이들이 돌아갔다. 5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 English Bible School 을 하였고 80명 정도의 학생을 보내 주셨다. 전체 학습과 그룹별 학습으로 나누어 공부 하였는데 8명씩 9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공부를 하였다(사진 5).



사진 6. 하루 사역을 돌아 보는 평가회

6시 저녁 식사 후 7시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평가회를 하였다(사진 6). 메뉴얼의 개인 사역일지나누기를 기준으로 하려 하였는데 선주성 장로님은 각각 사역별 평가회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 하여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한다. 여러 사역의 팀장들과 팀원들에게 어렵고 힘이 드는 조그마한 문제들이 있다.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은 현지 리더자중 영어가 가능한 full time 도우미가 소피언

과 따종 뿐이라는 것이다. 침뜸사역에 계속적으로 통역을 해 줄 도우미가 필요하고 영어사역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찬양, 율동과 전도집회 공연 연습까지 있어서 과연 팀원들이 체력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까 염려된다. 오후 8시 30분 기도회 후 공연 합창연습으로 하루를 마무리 한다.

2009년 12월 4일 금요일

모든 아침 사역들이 어제와 동일하게 다른 토픽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선주성 장로님, 이치형 목사님, 미미자매, Alan선교사님 그리고 정성욱 집사님은 학교를 방문하였다.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뵈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쉬리니앙(여), 치아(여), 레크나(여), 소판(남)의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유소팜-남) 이 가장 인상적이다. 그 분들에게 영어 수업을 해 드릴 수 있다고 기회의 문을 열어 주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도 어제와 같이 성경학교를 운영하였다. 팀원들 모두가 더욱 조직적이며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09년 12월 5일 토요일

오늘 사역은 단동마을에서 첫 전도집회를 하는 것이다. 오전 7시에 버스가 오기로 되어 있어서 QT를 각자 방에서 간단히 하기로 한다. 7시에 약 30석의 자리의



사진 7. 단동마을의 침뜸과 이발 사역

중간 사이즈의 버스가 도착한다. 교회의 의자로 40석을 만들고 오전 7시 20분에 단동마을로 향했다. 오전 8시 15시에 단동마을에 도착하였다. 오전 8시 25분에 황삼순 사모님이 현지 리더들과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오전 8시 30분에 무대를 설치 하기 시작한다. 먼지와 함께 팀원들을 땀을 흘리며 무대를 설치하고 한편에서는 그곳 무대 옆에 위치한 집을 이용하여 침땀사역을 무대 앞쪽의 공간을 이용하여 이발사역을 하게 되었다(사진7). 전도집회 공연이 드디어 시작 되었다. 공연이 시작되기까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200명의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였다. 공연은 오전 10시 10분에 아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Worship- Joyful
2. Violin 연주
3. Oh, Holy night 합창
4. Hand bell 연주
5. Worship- 주 없이 살 수 없네
6. 목사님 말씀
7. 무언극
8. 클라리넷연주
9. 전체 합창- The Bible tells me so
You raise me up
10. 축복송



사진 8. 목사님의 질문에 반응하는 단동마을 아이들



사진 9. 킬링필드에서 기도하는 대원들

공연 중간 목사님 말씀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는 역사를 본다(사진8). 모든 공연이 끝이 날 때쯤에는 우리 팀원들 중 몇 사람이 눈물을 보인다. 오전 11시 30분에 공연이 끝이 나고 마을 주민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오전 12시에는 새로운 교회부지에서 통성기도를 하고 버스에 올라 오후 1시 30분에 복음교회로 돌아왔다. 점심 후 킬링필드를 향했고 오후 3시 40분 정도에 킬링필드에 도착 그곳을 돌아

보았다(사진9). 그곳 관람이 다 끝나고 시장을 잠깐 둘러 장을 보고 복음교회로 다시 돌아오니 오후 7시가 되었다. 저녁 식사 후 8시 20분에 저녁 모임을 통해 전도집회의 감격을 함께 나누었다.

2009년 12월 6일 주일

오전 6시에는 마태복음 24:32-51 말씀으로 QT 하였다. 오전 6시 30 분 아침 식사 후 7시 30분 주일학교 200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였다. 선주성 장로님의 기도와 이치형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해 주었다. 현지리더자의 부족으로 통역의 어려움을 느낀다. 분반공부는 포기한다. 결국 목사님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으로 대신한다. 간식을 주고 9시에 예배를 마친다. 오전 10시에 대 예배가 시작되었다. 따종의 말에 따르면 어른 22명 청소년이 82명 보통 때 보다는 40명 정도가 많은 수다. 예배 중반에는 Oh

Holy Night을 우리 팀이 특송으로 합창하였다. 특송 후 누가복음 1장 26-38절로 Alan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 하였다. 주기도문으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마쳤다. 점심 후 오후 3시 영광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치형 목사님을 비롯하여 찬양, 율동 팀이 프놈펜으로 오후 12시 40분에 향하였다. 오후의 시간들



사진 10. 교회가 지어 준 마을 주민의 집

을 자유롭게 보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인사를 하기 위해 마을을 갔다. 보이지 않는 듯 마을이 있을까 싶은 곳에 조그마한 냇가를 지나니 마을에 집들이 즐비하게 있다. 그곳에 가게도 조그마하게 있고 마을회관도 식당도 있다. 마을 청년들이 그곳에 모여 스포츠를 함께 관람하는 것을 본다. 작년 9차에 우리 팀이 가난한 어느 장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집이 너무 낡아 교회에서 올

해에 집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사진10).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영광교회 갔던 지체들과 오후 6시에 저녁식사를 하였다. 오후 7시 30분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8시 30분 각자의 방으로 향하였다.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6시 QT를 누가복음 23:32-43로 나누었다. 오늘은 학교 선생님들 영어 수업이 있는 날이다. 오전 사역은 비슷한 방법으로 영어 성경학교를 준비하였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다. 8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도 준비한 풍선 불기와 풍선에 색칠과 색종이 만들기를 하였다. 은영 자매와 선희 자매는 막간을 이용하여 침뜸의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Sam Wan Jiao라는 13세의 남자아이가 심장이 좋지 않다. 심장병의 정도가 심해 내년까지 살지 의문이라는



사진 11. 심장병 Sam Wan Jiao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침뜸사역팀과 다른 팀원들



사진 12. 찬양을 따라하고 있는 Tta Tta Na

손뼉들 선교사님의 말씀이다. 기도 할 수 밖에 없어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 (사진 11). 미이용실은 중학생들로 가득 하다. 하루 동안 47명의 아이들이 머리를 깎았다. 성은 자매와 찬모 형제는 틈틈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예배당에서 한다. 11시에 4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오셨다. 그 중 한 분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다. 교장선

생님은 영어실력이 조금 떨어져 두 반으로 Alan 선교사님과 미미 자매가 나누어

영어를 가르치기로 한다. 간단한 test만 하였다.

오후 12시 20분 은지가 뚝뚝이를 타고 사모님과 도착하셨다. 오후 성경학교에는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하였다. 윤덕원 집사는 잠깐의 시간을 이용하여 교회 봉고를 손본다. 오후 침뚫사역에는 또 한 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다. TTa TTa Na는 12살의 여자아이다(사진 12). 총 52명 정도의 환자를 보았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오늘로 서. 남부 지역 교회 담을 페인트 칠을 완료 하였다. 물 탱크도 완료 되었다.

2009년 12월 8일 화요일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다. 오전 6시 갈라디아서 5:22-26으로 QT 하였다. 어제 Ssa Jji Eu라는 41세 된 남자가 허리부상으로 20년 이상을 다리 한쪽을 절었다고 하며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왔었다. 침뚫과 물리치료를 통증치료를 위해 해 주었



사진 13. Bannet(9세의 남자 아이)의 상처 치료

었는데 오늘 기쁨으로 다시 돌아와 허리의 통증이 많이 완화 되었다면서 절던 다리를 눈에 띄게 절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치유 해 주심을 그에게 알리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선주성 장로님은 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Sam Wan Jjao를 붙들고 기도해 주신다. 침뚫사역의 매력에 우리 대원들도 한 둘씩 들어와 뚫을 만들어 주고 경준 형제는 직접 뚫을 떠주는 등 자신의 바쁜 사역의 틈을 이용해 침뚫 사역을 돕는다. 이치형목사님이 성경학교를 운영하다가 어떤 아이의 발목에 검고 큰 반점을 발견

하고 보았더니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의료사역팀에 보내어져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Bannet이라는 9살의 남자 아이는 2주전 오토바이의 바퀴에 발꿈치가 끼어 살점이 떨어져 나갔었다. 열악한 의료기술과 가난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그곳이 거의 뼈에 가깝게 썩어 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mass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은영 자매가 Antiseptic Wound Dressing을 해 주었다. 치료의 호전을 더 기하기 위해 침을 직자로 상처부위에 놓아주기도 하였다(사진 13). 영어성경학교는 오전에는 50명 오후에는 105명 정도의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90명 정도의 청소년 반이 와서 함께 하였다.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 디모데후서 4:1-8 빌립보서 3:12-16으로 QT를 한다. 오전 영어성경학교에 65명의 아이들 오후에는 80명의 아이들과 100명의 청소년들을 보내 주셨다. 은지 자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실습시험이 보충시험을 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종일 울고 프놈펜으로 가서 비행기편을 알아본다. Alan 선교사님을 통해 담당자와 국제 전화 통화로 시험 날짜를 연기 해 보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급하게 호주 행 비행기 표를 구해 본다. 내일은 이곳 노동절로 공휴일이다. 이날을 크리스마스 행사로 대신 하기로 계획하여 기도와 프로그램을 짠다.

2009년 12월10일 목요일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어제 저녁 동안은 선물을 준비하였다. 548명분의 선물을 준비하였는데 대략 650명 (아이들 포함)정도가 와서 공연을 보고 선물을 받아 갔다(사진 14). 결국 선물이 부족하여 아주 어린 아이들은 과자로 대체한다.



사진 14. 크리스마스 특별 집회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사진 15. 배구 넷을 설치하느라 땅을 고르는 대원들

오후에 마을 청소년들과 운동을 함께 할 것을 광고하고 교회에 배구 넷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2시간을 걸쳐 땅을 고르고 긴 장대를 마을에서 구해와서 넷을 설치하였다(사진15). 한편에서는 우리가 사용한 물이 담으로 흘러 가서 논에 들어가 벼를 적셨다. 팀들이 가서 벼단을 안전한 곳으로 나르는 일을

하였다(사진16). 일이 끝나고 오후 2시 마을 청소년들이 와서 배구를 즐긴다. 와! 아이들이 난다(사진17). 배구 실력들이 수준급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삼겹살과 콜라로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과 영상으로 풍성한 음식으로 지친 몸을 달래본다.



사진 16. 벼단을 나르는 팀원들



사진 17. 배구를 즐기는 캄보디아 청년들

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성수경 집사님이 부엌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결국 몸을 일으키지 못하신다. 여자 팀원들이 주방을 대신한다. Sam Wan Jiao는 날이 가면 갈수록 병이 호전 된다. 오늘은 교회 청소까지 한다. 선주성 장로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배수로 공사를 한다(사진 18). 우리가 쓴 물이 자꾸 옆 논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함이다. 오전 영어성경학교에 아이들에게 Jesus Animation을 보여준다. 50명의 아이들이 68명의 청소년들이 오후 영어성경학교에 보내졌다. 이상하게 아이들의 수가 준다. 내일은 군 선교 전도집회가 있는 날이다. 이재율 선교사님이 오후 7시 30분 군 사역 전체를 프리젠테이션 하신다. 오후 9시20분 정도에 끝이 나고 이재율 선교사님은 택으로 돌아가시고 오후 9시 30분에 최인필 선교사님과 함께 하였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크리스찬 학교의 기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전도 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 해드리고 10시 30분에 취침하였다. 최인필 선교사님과 선주성 장로님은 한참을 대화하시다가 취침하신다.



사진 18. 배수로 공사를 하는 장면

2009년 12월 12일 토요일

빌립보서 4:10-20으로 아침 영의 식사를 하였다. 건담의 능력, 하나님께 의지하는 능력이다. 팀원들이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한다. 진경 자매가 몸살로 혜경 자매는

학교일로 돌아가야 한다. 무언극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모두 빠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 다시 의지해 본다. 경준 형제가 전도집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 19. 상의 부대 공연 후에 축복송하는 장면

오전 8시 군 선교 전도집회를 위해

이동한다. 오전 10시 45분에 상의군 부대에 도착하였다. 우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에 공연이 시작되었다. 학생이 400명 군인 50명 마을 주민들이 50명 정도이다(사진 19). 공연이 오후 3시 10분 정도에 끝이 났다. 아이들에게는 빠게트 빵을 어른들에게는 옷을 각각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팀원 중 한 사람이 쓴 내용이다.

‘진경이라 혜경이가 없었다. 유일하게 복음의 메시지가 언어와 상관없이 전해질 수 있는 무언극이 취소 되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 문화사역팀의 큰 일꾼들이 빠짐으로 우리의 사기는 크게 저하 되었다. 그치만 오늘 아침 QT 말씀을 생각하며 부족한 중에도 잘 적응하지만 우리가 없을 때에도 견디자는 말씀대로 기도하며 공연하였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의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한 순서 한 순서 열심히 임하였다. 공연 내내 햇볕에서 두 딸을 벌리시며 마치 모세처럼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의 모습은 우리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우리가 합창 할 때는 은영이가 맨 뒤에서 열심히 지휘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 주었다. 순서가 없는 순간 순간 기도해 주시던 집사님들 공연 순서마다 긴장하며 순서 정리하던 경준이, 그리고 기도하던 찬모, 열심히 묵묵히 반주하던 수민이, 몸이 안 좋아 아픔 중에도 최선을 다한 미르 그리고 모두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일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분의 일을 하시길 기대해 본다.’

오는 길에 비록 육신은 지쳤지만 영혼이 기쁜 우리들은 찬양을 내내 불렀다. 한 국반점에서 짜장면과 짬뽕으로 저녁을 대신하였다.

오후 9시에 도착하여 지친 몸을 쉰다.

2009년 12월 13일 주일

고린도후서 4:7-18 말씀으로 QT 하였다. 오전을 주일학교 예배 (40명 참석)와 대 예배 (61명 참석)로 드렸다. 수가 적어진다. 선주성 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추수철이라 논과 밭에서 일 하느라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도 마음이 무겁다. 평일 영어성경학교 반들이 반별로 찬양 발표회를 하였다. 영어찬양을 통해 준비 했던 것을 선생님과 함께 보이는 시간을 즐겁게 갖는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



사진 20. 영광교회 성탄예배

기를 기도 드린다. 오후에는 영광교회를 향해 간다. 많은 팀원들이 배탈로 고생이다. 아마 어제부터 사용한 정수기 물 때문인가 싶어 물을 다시 사먹도록 한다. 오후 3시에 예배 4시에는 성탄 축하예배를 드린다(사진 20). 아이가 33명 청소년 39명 어른 5명이 참석하였다. 5시 공연이 끝이 나고 내일 인도로 떠나실 정성욱 집사님과 선주성 장로님을 위한 중보를 하였다. 장로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말씀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 기도의 손은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목사님과 집사님들은 군 선교 이재율 선교사님과 나눔을 나머지 팀원들은 중국식당에서 영광교회 식구들과 저녁식사를 하였다.

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베드로 후서 1:3-11로 QT 하였다. 이춘우 집사님과 손봄비 권사님께서 오늘 한국으로 귀국 하셨다. 침뜸 사역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침뜸의 환자들은 많은 반면 이미용사역과 영어성경학교는 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것을 아는 것일까? 20명 정도의 아이들만이 오전에 왔다. 찬양팀이 우리가 아직 사역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마을로 찬양집회를 갔다. 학교 선생님들 영어학습은 4명이 꾸준하다. 오후 5시 청소년 대상 사역도 85명으로 평균을 유지한다. 오늘은 Alan 선교사님과 미미 자매가 산 성경책 100권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후 8시에는 캠프 파이어를 하며 서로 나눔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다.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2:1-17로 아침 영의 양식을 먹는다. Alan 선교사님이 어제 프놈펜으로 떠났다. 영어성경학교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아 대신 아이들을 씻겨 주었다. 여권검사를 나온 사람들이 돈을 요구한다. 내년 팀을 위해 어이없지만 그냥 주기로 결정하고 주었다. 저번에는 시에서 검사한다고 USD 50을 가져가더니 이번에는 군에서 USD 50을 가져간다. 양윤석 집사님이 한국에서 어머니께서 위급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비행기 편을 알아보시고 한국을 가시기 위해 프놈펜으로 가신다. 선교사님은 두 명의 심장병 아이들을 프놈펜 헤브론 종합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하였다. 교회 앞마당이 불도저로 판판하게 고름 작업을 한다. 놀이터 대신 교회마당과 학교로 이어진 길에 고르게 작업을 하고 흙을 사서 깔기로 한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성경학교는 Alan 선교사님 없이 Jesus 십자가 영화로 대신한다. 선교사님께서 돌아오셨다. Sam Wan Jiao는 이상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일까? 그런데 Tta Tta Na는 심장이 커져 있어 내일 더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많은 팀원들이 중간에 사정상 돌아갔다. 사역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오늘은 빌립보서 2:12-18로 QT한다. 내일 있을 군 사역 전도집회를 위해 진경이를 주인공으로 무언극을 연습 해본다. 어제보다는 아이들이 오전 영어성경학교에 많이 왔다. 30명의 아이들이 오전에 왔다. 오늘이 복음교회에서의 마지막이다. 오후에는 청소를 하였다. 5시 마지막 청소년들과의 시간이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영화를 보고 간식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하였다. Tta Tta Na의 결과가 나왔다. 심장 판막의 문제이다. 아이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수술은 어렵다. 아이의 성장 후 수술을 해야 한다. 침뚫팀도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고 준비된 침뚫셀을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수요기도회를 최병길 집사님의 인도로 갖는다. 내일 있을 군 선교

를 위해, 복음교회와 영광교회를 위해, 무사히 사역 감당에 감사, Adelaide 와 Gold Coast 그리고 몽골과 한국 팀이 하나되게 하심을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였다.

2009년 12월 17일 목요일

야고보서 1:2-18
로 아침 영의 양식을 먹는다. 시련의 결과는 더욱 큰 축복의 결과를 낳는다. 마지막 짐 정리와 간단한 사진 촬영을 하고 오전 8시 30분에 군선교지로 향하였다. 포병부대다. 더 나은 환경과 그늘에서 공연하는



사진 21. 포병부대 군 선교 전도 집회 공연 중 무언극

즐거움을 얻는다. 아이들이 100명 어른이 60명 정도 모였다. 공연을 열심으로 하였다. 오늘은 진경이가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하여 무언극도 하였다(사진 21). 공연이 다 끝나니 11시 30분이 되었다. 오후 2시에는 프놈펜에서 Shopping을 하였다. 오후 4시에는 옛날 고문 감옥을 돌아 보았다. 골드코스트 팀이 저녁 6시 40분에 공항을 향해 먼저 떠난다. 나머지는 영광교회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저녁을 지낸다.

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드디어 선교사역 마지막 날이다. 아침 영의 양식을 누가복음 17:7-10로 먹는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였음을 고백한다. 오전 8시 30분 공항으로 향하였다. 10시 45분에 탑승 하였다. Malaysia 공항에서 정성욱 집사님과 선주성 장로님을 만나다. 그곳에서 9명은 City Tour를 나머지는 공항에서 시간을 보낸다. 찬모 형제는 한국

으로 수민 자매를 비롯한 6명은 Malaysia에서 3박 4일을 머물 예정이다. 그 중 은영 자매는 한국으로 귀국한다.

2009년 12월 19일 토요일

아침 7시가 조금 넘었다. Adelaide 공항에 나오니 문광식 목사님과 교회 분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준다. 아! 이렇게 해서 제 10차 캄보디아의 18박 19일의 여정은 끝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함이다. 아멘.

2) 단기 선교 사역

선교의 전반적이고 팀별 현황을 사역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 일정 - 2009년 12월 1일 - 19일
- ✚ 장소 - 캄보디아 꾀다우 복음교회를 중심으로
- ✚ 선교목적 - 현지 선교사님을 도와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위해
- ✚ 팀 - 아틀레이드 장로교회 24명, 골드코스트 장로교회 5명, 몽골 침뚸 팀 3명, 한국 여호와라파 침뚸 팀 4명

1) 영어 성경 학교

- ✚ 장소 - 캄보디아 꾀다우 복음교회

프로그램	담당	일	시	대상	통계
주일학교 영어성경학교	이치형 목사님	12월 3-4, 7-9, 11, 13-16일	오전 8시-10시 오후 2시-4시	13세 미만	오전 70명 오후 80명
청소년 영어성경학교	Alan 선교사, Mimi 자매	A/A	오후 5시-7시	13세-18세	평균80명-100명

2) 건설교통 사역

✚ 장소 - 캄보디아 꾀다우 복음교회

내용	담당	일	시	결과
페인트 교회 바닥, 마을 길 훑갈기, 교회 페이빙, 배구 코트 설치	최병길 집사님	12월 3-4, 7-9, 11, 13-16일 (주일 빼고)	일과	완성 과정 완성 완성
붕고 정비	윤덕원 집사님	A/A	A/A	브레이크, 파워 핸 들, 클러치, 오일 새 는 것

20

3) 침뚫 사역

✚ 장소 - 캄보디아 꾀다우 복음교회, 단동 마을, 상의 부대

내용	담당	일	시	통계
침뚫, 간단한 수 술, 물리치료	손봉들 선교사	12월 3-16일 (주일, 휴일 빼고)	일과	40명-70명/day
- 작년 사역 기간 동안 간질병 아이(위젯 동생)이 나음을 입은 것을 알게 됨 - 두 명의 심장병 아이들을 치료 - 13세 남 썬완자우(사역 당시: 완치) 12세 여 따따나(현재 삼첨판 질환, 성인이 되어 수술 요)				

4) 이미용 사역

✚ 장소 - 캄보디아 꾀다우 복음교회, 단동마을

내용	담당	일	시	결과
이용 사역	박주연 자매	12월 3-4, 7-9, 11, 13-16일 (주일 빼고)	일과	10-20명/day
이발 사역	이상민 집사님	A/A	A/A	A/A

5) 전도집회 사역

- ✚ 장소 - 캄보디아 꾀다우 복음교회, 프놈펜, 영광교회, 단동 마을, 군부대 (상의 부대, 포병부대)

내용	담당	일	시	결과
단동마을 복음교회 영광교회	강경준, 유진경	12월 5일 12월 10일 12월 14일	오전 오전 오후	200명 정도 650명 정도 77명 정도
상의 부대 포병 부대	A/A	12월 13일 12월 17일	하루 오전	500명 정도 160명 정도

6) 선생님 영어 사역

- ✚ 장소 - 캄보디아 꾀다우 복음교회

내용	담당	일	시	결과
꾀다우 학교 선 생님 상대로 영 어 강습 시작	Alan 선교사 와 Mimi 자매	12월 7일-17일 (주일 빼고)	오전 11시-오후 2시	교장 선생님 포함 평균 4명 (2 여, 2 남)
모든 선생님들이 영어수업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였음.				

결론

18박 19일 동안의 단기선교를 통해 많은 일을 하였지만 역시 부족한 사역이었고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한다. 이번 선교사역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선교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일대일 현지 리더자 관리를 온 정성과 사랑으로 하되 전략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아래의 도표는 지금 현재 프놈펜 영광교회의 리더자로 섬기는 지체들과 연락처이다(첨부분서). 작년에 이들 중 피어런이라는 청년은 신학을 결심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한적이 있다. 교회에 사역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 사역자 중심의 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사역자 양성이 목적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리더들이 또 다른 리더들을 양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사정상 떠나더라도 빈자리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있는 리더자들을 한 사람씩 우리교회 직분자들과 관계를 지어 중보하며 후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둘째로 현지 선교사님과의 관계를 재형성 한다는 것이다. 동역관계로 아니면 협력 관계로 사역을 하는 것인지를 교회의 입장에서 명확히 하여 단기 선교나 후원을 할 때 이를 고려 어느 정도까지 우리교회가 준비하고 참여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셋째로 단기사역의 계획성의 결여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 사역의 방향에 따라 많은 성도님들의 열심과 후원이 바탕이 되어 많은 후원금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여 준비하였다. 하지만 준비한 것에 비해 사역의 실천은 미비하였다. 단기사역은 현지선교사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일 년 동안에 단 한번의 방문이기에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올해는 사업 계획 중 놀이터 건축과 파출소 화장실 설치가 요구 되어 이를 위해 준비 하였다. 결국 이 두 가지 모두 취소 되고 교회 마당과 마을 길 고르기와 흙 깔기로 대신하였다. 이러한 사역은 일년 중 우리 단기 선교 사역의 하나로 사용하는 것도 모순이지만 사역계획에 일단 들어간다면 신중한 생각과 고려를 통해 결정하고 정확한 견적과 예산을 책정 한 뒤에 이루어 져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다.

넷째로 교회 자체 단기선교 의료팀의 결성이다. 작년과 올해 두 번 손봄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침뜸의료사역을 감당 할 수 있었다. 손봄들 선교사님은 몽골 의료 선교사님으로 몽골에 기독교 침뜸병원을 계획하고 계신다. 본인이 계획하신 사역이 있기에 언제까지 우리교회의 단기 사역을 도울 수 있을 지 모른다. 침뜸 사역의 효과와 열매를 고려 해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교회의 자체 의료선교팀 결성의 필요성을 느낀다.

다섯째로 학교 선생님들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사역을 통해 네 명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었고 교장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고백을 하였다. 후속양육과 사랑이 필요 할 것이다.

여섯째로 복음교회 리더자 양성이 절실 하다는 것이다. 현재 소피언이라는 젊은 전도사와 따종이라는 청년이 복음교회에서 머물며 관리하고 있지만 이들이 교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곧다우 마을 전체의 복음화의 잠재력이 큰 반면 복음교회 리더자 양성이 너무 미비하다. 영광교회도 리더자들의 침체 상태는 마찬가지이다. 진실한 현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3개월 이상의 중 장기 사역자를 현 상태에서 보내는 것은 현지 선교사님과의 관계의 불투명함과 복음교회와 영광교회의 전략적 사역 방향의 미비함으로 혹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태라고 고려된다. 다시 말하면 구조적이며 전략적인 사역 방향의 재형성이 없이는 무모한 모험이라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 지어 크리스찬 학교 형식의 유치원 운영에도 명확한 계획이 있어 보이지 않아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학교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구조적이고 전략적 유치원운영에 따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유치원으로 운영이 시작 되었지만 유치원 운영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학기의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과정의 활동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 쉬지엔이라는 유치원 선생님 자격의 경험이 부족한 선생님 한 분으로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오후에 하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어학습도 이와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단기선교 팀원들의 평가회를 통한 의견을 정리해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먼저 훈련에는 조기 지원과 조기 훈련, 팀별 사역 훈련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신앙교육과 생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것이다.

사역에서는 현지 선교사님과 리더자들과의 동역의 느낌이 부족하다는 것과 건설교통사역과 전도 집회 사역이 단기사역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는 의견과 그곳 리더자의 도움의 부족이 주 의견이며 사역가운데 서로간의 마음을 나누는 나눔이 부족 했다는 것이 또 다른 의견이다.

사역 후의 동정을 살필 수 있는 사역 후 보고가 선교사님으로부터 없다는 것이 다음 해의 단기사역 계획에 어려움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장 많은 의견은 그곳 리더자를 세우고 그곳 리더자가 사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기 선교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다.

Alan 선교사님의 도움의 유익함을 인정하고 SIM 과의 협력관계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도 SIM 과의 관계성을 다시 고려 형성 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

이상 보고서에서 보고 된 내용은 최대한 객관성을 갖기를 노력하였다. 앞으로 사역 방향성을 위해 부정적인 면과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발전을 위한 내용이며 판단을 위한 내용이 아님을 조심스럽게 밝힌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캄보디아 선교 방향을 계획하고 기도하기를 제시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위에 성령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그분께 의뢰하며 묻고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며 이 보고서를 마친다.

첨부분서1

THE PHONE NUMBER OF CHURCH MEMBERS		6 SEP. 2009	
Member	Phone	한글이름	비고
GBPC	023-993 550	영광교회	
Stephen(Pastor)	012-528 308	목사 최인필	
Lydia(Mrs.)	011-379 861	사모 황삼순	
Sophy	011-46 46 45	형제 수피	수세,교사,장결
Siev Chien	012-71 54 18	자매 슈쥬엔	수세,교사,핵제
Phirun	017-512838	형제 피어런	수세,교사,핵제
Visal	017-660-944	형제 윗사	수세,교사,핵제
Sokha	092-74 32 17	자매 소카	수세,교사,장결
Veasna	012-55 16 44	형제 위스나	수세,교사,보제
Som Oeun	012-21 26 49	형제 솜은	수세,교사,장결
Thyda	092-612 730	자매 티다	수세,교사,보제
Daravuth	092-837 806	형제 다라붓	수세,교사,장결,일본
SokLang	023-994775	자매 속랑	수세,보제,한국인결혼
Sokna	092-88 98 86	형제 속나	수세,교사,핵제
Tazong	077-701-201	형제 다종	수세,교사,핵제
Ladeth	012-223294	자매 라다엔	수세,교사,핵제
Poulim	092-612730	자매 보올림	수세,보제,티다엄마
Sok Mao	015-533 351	형제 속마오	수세,교사,장결
Sievly	089-330 057	자매 슈리	수세,교사,장결
Singhai	097-8308285	형제 싱하이	수세,교사,장결
Rothana	012-406 410	형제 로타나	수세,교사,보제
Sophian	097-926 3635	형제 소피언	복음교회 교사
Bhannga	092-855523	자매 반나	수세,교사,보제,호주
Nuch	013-65 85 39	자매 닛	보조교사
Chenge	098-459031	자매 칭이	수세,교사,핵제
John	017-661 635	형제 존	수세,장결
Vichheka	092-66 55 96	자매 위치까	수세,교사,핵제,한국
Heart	016-57 66 70	형제 하트	보조교사
Borey	011-64 08 76	형제 보레이	보조교사

Mimi 자매로부터 온 이메일 내용을 기초로 한 학교 선생님들의 이름과 연락처

교장 선생님 이름: SAPHOM - 전화 번호 011 902 943

선생님: Srey Neang Cheas - Sreyneang.Cheas@gmail.com - phone: 012 663 974, 097 788 0027, 013 748 075.

이 선생님이 교회에서 영어 알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촌 데리고 온 선생 입니다. 사촌은 하나님을 영접했고, 정말 괜찮은 아이 입니다. 저한테 벌써 호주로 3 번 전화 가 왔습니다. 이 학생 이름 은 Wotey 이고요, 전화번호는 097 925 8949

또 하나의 선생님 은 Riatna 인데, 그사람 연락처가 없네요. 아마 선장로님, 또는 Alan 이 같고 있을 것입니 다.

첨부문서2-제 2009 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 재정

10차 2009년 11월 중

내역		1. 예산	2. 기 집행 액	3. 집행 예정 액	4. 순수 예산 대비 과(+)/부 족(-)	5. 접수된 후원 액	6. 과/부족	비고
항 공 료	이목사님 티켓	A\$1600	A\$1270	U\$1232	+A\$330			
	공항이용료/Visa	A\$1400						
	예방접종비	A\$2000	A\$2000					
	단체유니폼	A\$500	A\$538					
단기선교 훈련비		A\$200	A\$262.60		-A\$62.60			A\$100x20
식 비	부식 재료비	A\$1000	A\$1150	U\$528	-A\$150			A\$25x24
	매식(공항에서 아침 /저녁)	A\$600						
생 필 품	First Aid Kit	A\$150	A\$158.80		-A\$8.80 -A\$780			
	의약품/생필품	A\$1000	A\$1780					
봉 사 사 역 비	놀이터 건축	A\$0		U\$2200	-A\$2500			
	학교 축구대 건축							
	교회 담 페인트 칠							
	교회 차 정비							
	화장실 건축							
	면사무소 수리							
문 화 사 역 비	기타 건축사역							
	음향장비	A\$0	A\$1312	U\$396 U\$1320	-A\$1312			
	공연준비물	A\$450						
	전도집회 선물	A\$1500						
의 료 사 역	침땀/의료사역	A\$200	A\$34.20		+A\$165.80 +A\$18			
	치위생사역	A\$200	A\$182.70					
교 육 / 전 도	프로그램 준비 (문 구류 등)	A\$500		U\$440				U\$0.50x10일 x100인
	간식	A\$600		U\$528				
군 선 교	남/여 상의 배송	A\$0	A\$680.20	U\$1320	-A\$680.20			
	군 선교 후원	A\$1500						
현지 생활비		A\$2600		U\$2288				유류비, 현지 부식비, 차량 임대비 등
예비비								A\$2440.45
Total		A\$16000	A\$9368.50	U\$10252 (A\$11650)	-A\$5017.80	A\$7458.95	A\$2440.45	

*1-2-3=4, *1+5-2-3=6

교회 후원금: A\$16000 개인/단체 후원금: A\$7458.95

*U\$/A\$ Exchange Rate -

U\$0.88/A\$1.00 기준

10차 재정 2009년 12월 1일 현재

내역		1. 예산	2. 기 집행 액	3. 집행 예정 액	4. 순수 예산 대비 과(+)/부족(-)	5. 접수된 후원 액	6. 과/부족	비고
항 공 료	이목사님 티켓 공항이용료/Visa	A\$1600 A\$1400	A\$1270	U\$1232	+A\$330			
	예방접종비	A\$2000	A\$2000					A\$100x20
	단체유니폼	A\$500	A\$538		-A\$38			
	단기선교 훈련비	A\$200	A\$262.60		-A\$62.60			
식 비	부식 재료비 매식(공항에서 아침 /저녁)	A\$1000 A\$600		U\$528	-A\$150			A\$25x24
생 필 품	First Aid Kit 의약품/생필품	A\$150 A\$1000	A\$158.80 A\$1780		-A\$8.80 -A\$780			
봉 사 사 역 비	놀이터 건축 학교 축구대 건축 교회 담 페인트 칠 교회 차 정비 화장실 건축 면사무소 수리 기타 건축사역	A\$0		U\$2200	-A\$2500			
문 화 사 역 비	음향장비 공연준비물 전도집회 선물	A\$0 A\$450 A\$1500	A\$1312	U\$396 U\$1320	-A\$1312			
의 료 사 역	침뚫/의료사역 치위생사역	A\$200 A\$200	A\$34.20 A\$182.70		+A\$165.80 +A\$18			
교 육 / 전 도	프로그램 준비(문구 류 등) 간식	A\$500 A\$600		U\$440 U\$528				U\$0.50x10일 x100인
군 선 교	남/여 상의 배송 군 선교 후원	A\$0 A\$1500	A\$680.20	U\$1320	-A\$680.20			
	현지 생활비	A\$2600		U\$2288				유류비, 현지 부식비, 차량 임대비 등
	예비비							A\$1000(예 산 외의 교회 지원)
Total		A\$16000 +A\$1000	A\$9368.50	U\$10252 (A\$11650)	-A\$5017.80	A\$8964.42 +USD1000		

U\$ Total: U\$23225 – 2009년 12월 1일 현재

군사역 (이재율 선교사님): U\$ 1500

*캄보디아 4분기 정기 선교헌금 (최인필 선교사님): U\$6600

공항이용료: U\$ 600

Visa: U\$490 (U\$20x24+U\$10(Surcharge))

최인필 선교사님 어머니님 상 조의금: U\$100

Sub Total: U\$9290

Killing Field: U\$2X30=U\$60

Alan 선교사님 선교비: U\$100

교회 휴 구입: U\$1300 (놀이터 사업 대신)

윗사와 소피언 기름값: U\$15

빵값(팀 지불): U\$ 10X6=U\$60

부식(팀 지불): U\$ 100+U\$66

배구 Net 1&배구 공: U\$45

차 부품: U\$40

Printer Cartilage: U\$58

Gospel Song (Khmer) Book&CD: U\$9

차 임대: U\$10

매식비와 차 임대료(말레이시아 공항): U\$155+U\$ 450 (말레이시아) + U\$153+U\$122(군 선교 후) + U\$150(영광교회 전도 집회 후)=U\$1030

Mobile Recharge Fee: U\$30

종이 값: U\$25

얼음 값: U\$50

주연 자매: U\$3

고기: U\$40

경찰 Visa 검사: U\$50(군) + U\$50(시)=U\$100

감옥: U\$40

Alan 선교사님 성경책 구입비: U\$300

Sub Total: U\$3431

사모님으로부터

전도집회: U\$845.38

선교 팀 부식 및 기타 경비: U\$843.44+U\$1,404.96+U\$218.37=U\$2466.77

Sub Total: U\$3312.15

기타 U\$53 (부식비, 연료 및 얼음)

돌아와서 통일 무역 지급: **U\$1140(A\$1250)**

Total USD 16953.15

U\$23225-U\$17226.15(U\$17227 지불)=U\$5998 (to reimburse to the Church, this will be used for next mission trip)